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3월 1일(금)  
---(음력 1월 21일)---  
Пятница  
1 марта 2024 г.  
№ 8 (1207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월 27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대규모 개건을 마친 동양무술스포츠학교(교장 김정태)가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식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러시아 연방 가라테연합회 회장 최 세르게이가 환영인사를 전했다. 주 예산 자금으로 2년간 개건에 착수한 가운데 건물의 면적은 거의 3배 확장되어 선수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선수 470명만이 훈련 할 수 있었다.  
개건된 동양무술스포츠학교 건물.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주택 출입구 대규모 보수공사의 새로운 단계 전개

올 초부터 수십 개의 시설이 정비되었고, 1분기 계획으로는 340개 공동 주택 출입구, 2024년에는 총 3천 개 이상의 시설들을 개선해야 한다. 올해 설정한 과제는 모든 주택들의 출입구가 필요로 하는 개보수공사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먼저 이런 시설들의 개보수공사는 홈스크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둘째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뤄졌고, 코르사코프,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쿠릴스크, 세베로 쿠릴스크 지역에서 시행됐다. 공동주택 출입구 개보수 공사는 <배려, 보호, 존중> 주지사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이며, <러시아 통합>, <우리의 마당, 우리의 출입구>기획도 마찬가지로이다. 지난해에는 4천 개 이상의 시설들에 미장작업을 했다. 올해엔 공동주택 출입구의 필요한 개보수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개보수공사 작업은 현재 몇몇 지방자치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사할린 지역 전체에 보수공사가 전개되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출입구 개보수 공사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직통전화 \*0065로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대표자에게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주택공사사업부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이 말했다. 현재 수리작업에는 흰 벽 칠하기, 외벽 페인트 칠하기, 현관문, 난간 교체 및 복구, 우편함 설치, 전선용 케이블-피복선 덕트 설치 등이 정해졌다. 주 예산의 보조금 지원으로 시행업체들은 지출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고 있다. 올해 지역 예산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4억 루블리를 책정했다.

관리회사와 '러시아 통합'당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예술적 외벽 조성, 꽃 및 장식물 설치 등의 추가로 출입구가 정비된다. 가장 창의적이고, 특별한 공간들은 <모범적으로 구성된 출입구>경연에 참가할 수도 있다.

## 알레리 리마렌코와 사할린주 청년정부 의원들과 공동사업 총결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할린 주정부 청년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지역 정부기관의 대표들과 사할린의 청년들은 청년 행사 조직과 청년주택 구매,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할린 지역에 전문인력 유치에 대한 과제를 결정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 사업의 중요성 중 하나는 사할린 청년들의 말을 듣고, 들려주는 것이다. 오직 이런 과정 속에서만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고, 사할린과 쿠릴에 자질을 갖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으며, 생활을 향상시키고, 청년가정을 포괄적으로 도울 수 있다. 청년정부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정부의 타치야나 마나코와 총재는 "가장 다양한 문제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서 여기에 사업의 기본 방향들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 진출, 집, 가정>기획은 우리의 활동방향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정부부처의 지원 덕에 가능했다. 전방위적 지원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적극적인 청년들과 일하며 우리는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러시아 연방정부 청년정부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35세 이하 사할린 주민들은 누구나 사할린주 청년정부 팀에 자신의 기획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말했다.

(7면에 계속)

## 단신

### 사할린주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

2월 25일(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할린주 외딴 지역과 벽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25일(일) 아침에 해안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키린스코예와 유즈노키린스코예 가스생산지의 근로자들이 투표장에 참여했고, 소쿠릴열도 경비부대에서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도 투표에 참여했다.

현재 사할린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사할린의 수십 개 지역을 방문해 벽지 주민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할린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 총유권자는 37만 3천 591명이며, 투표소는 구치소와 병원, 공항에 위치한 임시 투표소를 포함해 290곳에 마련돼 있다.

러시아 대선 본투표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 <활동의 지도력>지역 여성 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2월 28일(수) 사할린에서 <활동의 지도력> 지역 여성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 지역의 여성대표들과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 지부 회원 대표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의 여성들은 특수군사작전의 장병들과 장애인, 고령층과 참전용사들을 돕고 있다. 포럼에서 이들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새롭고 유익한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에게는 사할린 주지사를 대신하여 세르게이 바이다코프 제1 부지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포럼이 두 부분으로 진행된 가운데 첫 부분의 일환으로 <보건 부문에서 지도>, <문화 부문에서 지도>, <교육 부문에서 지도>, <사업에서 지도>, <정치 부문에서 지도>, <국가 전통에서 지도>, <청년들 속에서 지도> 등 7개 방면에서 토론마당이 조성되었다.

포럼의 둘째 부분으로 주제별 활동교실이 열려 사할린의 활동적인 여성들은 <보건>, <국가 전통>, <최고들의 활동>, <사업> 활동교실에 참여했다.

### <고르니 워즈두흐> 사할린 휴양소에서 1백만 번째 하강 기념

<고르니 워즈두흐> 사할린 산악 휴양지에서 겨울철 2개의 기록적인 일이 전해졌다. 하나는 휴양소에서 백만 번째 스키 하강이 기록됐고, 둘째는 하루 방문객 수가 6천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 코로나 19 감염률, 한 주 만에 40% 증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사할린주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70명이 등록된 가운데 이는 전주보다 40%가 증가한 수치라고 사할린주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그중 17세 이하 연령층에서 코로나 19 환자는 9명으로 기록됐다.

새고려신문

##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인민 아티스트 최 아니타, сахалин 방문

〈러시아는 우리다〉행사 일환으로 сахалин을 방문한 러시아 연방 인민예술가 칭호 수혜자인 아니타 초이(최) 가수가 지난 2월 27일(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сахалин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박순옥 회장은 이날 유명한 러시아 가수에게 сахалин한인의 역사와 сахалин한인협회가 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간담회 도중에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이 되는 해라서 이와 관련 행사를 함께 할 계획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코레이스키 텔레그라프' 텔레그램-채널이 전했다.

참조: 최 아니타는 가수 겸 작곡가이자, 러시아 최고 쇼 공연 감독, 돈국립기술대학교 창조산업학과장이다.



### сахалин 출신 정영순 씨,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선출

지난 2월 25일(일) 한국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고려인협회의 제3 결산선거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고려인협회의 신입회장 선출에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여 다수가 결로 сахалин 출신 정영순 교수가 선출되었



사진 왼쪽으로부터: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 권경석 전국сахалин귀국동포연합회 회장, 정영순 신입회장(중심), -대한고려인협회 노승달 회장

다. 최근에 정 교수는 이 단체에서 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고려인 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자립심을 키워나가야 한다. 협회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이 중요하다."고 정영순 신입회장은 강조했다. 정영순 신입회장은 언어학 박사이다. сахалин국립대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수로 활동하였고, 부산 러시아인 칼리지 설립자이고, 교장직에 있다. 현재 인천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본사 기자)

### 비영리 단체, 조국 수호자들을 위해 활동 행사장 개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월 말에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 박물관에서 〈сахалин의 전통. 이는 우리의 자랑〉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의 일환으로 박물관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4일-25일 이틀간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сахалин의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그중 민족단체가 많았는데 한인단체들도 이에 적극 참여했다. сахалин주한인협회 (회장 박순옥)는 сахалин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베라)과 공동으로 나전칠기 만들기 활동교실을 열었고, 자개를 이용해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을 위한 조국 수호자의 날 축하엽서를 만들었다. 〈сахалин한인〉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근)와 한민족 문화를 보급하는 '한글'창작협회(회장 배영희)는 이날 한민족 다도에 대한 전시회를 열고, 보성의 차를 소개했다. 이날 다도교실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차와 함께 떡과 전통과자를 시식해보며, 전통차의 상징을 그려보고, 한글로 이름을 써보기도했다.



(본사 기자)

### 하바롭스크, 3·1 독립운동 기념 행사 열어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회장 백규성, 하바롭스크)는 3·1 독립운동과 관련 행사들을 하바롭스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월 29일(목) 오후 4시 하바롭스크시 '아리랑'민족간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강론' 토론회를 열고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한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며 학자들과 대학생들의 발표가 있다. 토론회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중국 및 현대 아시아 연구소의 한반도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김영웅 박사(모스크바), 백규성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 백규성 회장, 태평양 국립대학교 언어학 및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대학의 알렉산드르 이와노브 교수를 비롯해 동 대학 대학원생과 학생들이 참가한다. 또한 3월 2일(토) 11시에 하바롭스크 유노스찌 거리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행사로 씨름대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많은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2024 -сахалин의 얼음-2024> 축제 상품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전달

〈сахалин 얼음〉 얼음낚시축제는 지역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인기 있는 축제라고 연방수산청이 전했다. 이번 축제 대상의 부상품은 자동차였는데 최고로 많이 낚아 우승한 팀이 부상으로 받은 차량을 특수작전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방 수산청은 "낚시인들은 처음부터 낚시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참전자들에게 뭔가 기여하고, 지원하기 위해 1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했다."고 전했다. 우승자 중 파벨 다닐렌코는 우승을 예감했다고 언급했다. 이미 2년째 조국 수호자의 날에 축제가 진행된 가운데 сахалин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고, 낚시 동호애와 팀 정신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공동의 분투하는 정서를 선사했다.

#### Главный приз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2024» передадут в зону СВ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подледн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который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местных рыбаков.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Главным призом фестиваля был автомобиль. Команда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ая отличилась уловом, решила передать машину бойцам СВО. «Рыбаки изначально боролись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е только ради улова, но и чтобы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и поддержать страну и наших бойцов», - отметили в агентстве. Накануне один из победителей Павел Даниленко отмечал, что предчувствовал выигрыш. Второй год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ят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Он объединяет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дарит ощущения рыбацкого братства, командного духа и совместной борьбы за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 <플로샤드카(행사장)> 축제 - 판매, сахалин주에서 진행

〈플로샤드카〉 축제 - 판매에 сахалин 주민들을 초대한다고 〈문화의 섬. сахалин〉이 텔레그램-채널을 통해 전했다. 예술을 하는 сахалин 주민들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장식예술품, 핸드메이드, 의상, 액세서리, 그림, 기타 직접 손으로 만든 창작품 등 공예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구매자들을 기다린다. 〈플로샤드카〉 축제 - 판매의 구매자들은 자신과 친지들을 위해 독특한 공예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활동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 지역에 등록된 18세부터 35세까지 공예 전문가들이 축제에 합류하는 가운데 판매는 3월 초에 '마야크( 등대)'아트관에서 진행된다.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маркет «Площадка»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фестиваль-маркет «Площад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 Творческие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хорошими подарками. Покупателей ждут дизайнерские изделия в сфер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handmade, одежда и аксессуары, картины и другие авторские продукты руч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сетители маркета «Площадка» с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купить уникальные изделия для своих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но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олез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фестивалю могут мастера от 18

до 35 л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кет пройдет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в начале марта.

#### <소비에트의 전설> 자동차 경주, 7년 만에 сахалин에서 처음 개최

〈소비에트의 전설〉 자동차경주 1차 경기가 2월 23일 타우로 호수 빙판 위에서 개최되었다고 '우글레고르스키 웨도모스치'지가 전했다. 자동차 경주자들은 '지굴리' 국산 차량을 타고 미끄럽고, 둥근 주행코스를 내달렸다. 주내 여러 지역들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인들이 경주에 참가하려고 샤흐초르스키에 모여들었다. "타우로 호수에서 겨울 끝무렵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경기가 열렸다. 7년 전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동차경주 매니아들과 팬들이 전통 행사를 되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2차 자동차 경주는 3월 8일 11시로 계획돼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за 7 лет прошли автогонки «Легенды СССР»

23 февраля на льду озера Тауро прошел первый этап автогонок «Легенды СССР».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Углего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Автолюбители испытали скользкую кольцевую трассу на машинах отечественной марки «Жигули». В Шахтерске собрались экстремалы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огда-то гонки в конце зимы на Тауро проводились регулярно. Последний раз - 7 лет назад. В этом году энтузиасты и поклонники автоспорта, надеемся, возродили эту традицию»,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торой этап автогонок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8 марта.

(8면에 계속)

##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 조상에 대한 사할린한인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자 새고려신문 제 44호에 사할린한인 무연고 추모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사할린 땅에 조상들의 묘가 있는 한인으로서, 이 무연고 추모관에 저의 친척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무연고 추모관에 무연고가 아닌 친척이 있는 사망자의 위패가 있다는 사례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모관 측에서는 연구를 수행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패에 새겨진 사람에 대한 조사나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목록은 고인 중 누가 '무연고(친인척이 없는)'인지 아닌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이름과 날짜를 베껴 쓰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할린 땅에 묻힌 이들이 후손도, 친척도 없고 '뿌리 없는' 사람으로 여긴 추모관 설립자들은 우리 모두를 '뿌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땅에서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사할린 땅에 묻힌 그들 모두가 이제 '뿌리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할린 한인'이라 불릴 권리가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죽은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무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의식과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인들은 특정 의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인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아마 다른 사할린 한인 가족들 모두 장례 또는 제사를 올릴 권한을 양도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 우리 조상에 대한 행동을

을 무슨 권리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친척의 적절한 동의 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모관 측에서 위패 이름 목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러시아 법률 위반과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무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연고 추모관 측에서 사할린 한인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 이름, 생년월일과 사망날짜가 포함된 명단을 한국어로만 작성하고 일부 단체와 기관에만 보낸 것, 그리고 의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로즈아그로'회사에 제출하라는 것이 추모관 관리를 하는 이들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추모관 측에서 개인정보를 게시한 사람들의 모든 친척이나 상속인을 찾아 통보하고, 해당 정보 게시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고, 친척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추모관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사할린 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콤나드조르(Roskonnadzor, 통신·정보 기술·매스커뮤니케이션 감독 연방청) 지역 사무소에 요청서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내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가 작성한 요청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8-914-756-5469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박 웨니아민

편집부로부터: 러시아어 본문 새고려신문 2024년 2월 23일호 게재

창작의 마음을 나누는  
조성용 화백

지난 2월 25일(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조성용 화가의 만남을 주최했다. 1960년생인 동포 화백은 이날 관객들에게 화가가 되는 꿈이 언제, 왜 생겼는지 이야기하고, 이르쿠츠크예술전문학교, 블라디보스토크문화예술대학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고,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또한 그는 30년 동안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에서 디자인과 학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였다. 재능있는 화백으로서 인정받은 조성용 화가의 작품은 한국,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도 전시되었고, 여러 나라의 컬렉션에 소장돼 있다.

조 화백은 이날 앞으로 계획과 하고 싶은 작품 등 대해서도 말하였다.

조성용의 작품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만남 시간을 보냈다.

(배순신 기자)

우일타어, 나나이족의 언어,  
한국어를 소개하여

2월 21일은 러시아에서 민족 고유어(모국어)의 날 기념한다. 이와 관련 행사가 지난 27일(화)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관객들에게 세 가지 언어가 소개되었다. 북방소수민족 사할린 원주민 우일타(오로크)족의 언어에 대해 이날 본 박물관 직원인 울가 솔로비요와가 이야기했고, 북방소수민족 나나이족의 언어는 장기간 주 일 반과학도서관에서 근무한 엘리자베타 자피가 소개했다. 현재 사할린에 우일타 족은 490명도 안 되고 나나이족은 약 280명이다. 우일타족은 사할린 원주민이고 주로 사할린 섬 중부, 북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즉,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지역이다. 나나이족은 사할린 원주민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하바롭스크 변경에 거주하고 있다. 나나이인들은 처음 사할린에 1947년에 왔었는데 그 당시 20여 명이었다고 한다. 우일타족은 현재 언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고 있고, 옛이야기도 출판하고 있다. 그래도 자기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적다. 사할린에 사는 나나이인들은 주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은 포로나이스크 지역이다. 이들은 주로 모국어로 말하기를 어려워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같은 경우 나나이인 50여 명 중 두 사람만 자연스럽게 나나이어로 얘기할 수 있다.

이날 북방소수민족 대표 두 분이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들려주면서 이들이 모국어를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이날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가 관객들에게 한국어, 조선말, 한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올해 창간 75주년이 되는 새고려신문 역사와 현황을 이야기하였다.

관객들은 이날 주의 깊게 발표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 질문도 하였다. 한편 행사를 연 사할린주향토박물관 표도르 미군(납흐인) 전문가는 민족 고유어에 대한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 러시아어, 부랴트어, 납흐어, 한국어가 소개되었다고 전했다.

사할린에는 100여 민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민족 고유어에 대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본사 기자)

## 허진원의 &lt;사랑하기 좋은 날&gt;

## 눈 내리는 마을 / 오탁번

건너 마을 다듬이 소리가  
눈발 사이로 다듬다듬 들려오면  
보리밭의 보리는  
봄을 꿈꾸고  
시렁 위의 씨옥수수도  
새앙쥐 같은 아이들도  
잠이 든다

꿈나라의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밤마실 나온 호랑이가  
달디단 곳감이 겁이 나서  
어흥어흥 헛기침을 하면  
눈 사람의 한쪽 수염이  
툭 떨어져 솟이 된다

밤새 내린 눈에  
고살길이 막히면  
은하수 물빛 어린 까치들이  
아침 소식을 전해 주고  
다음 빙하기가 만년이나 남은  
눈 내리는 마을의 하양 지붕이  
먼 은하수까지 비친다

"시의 서정이 참 숨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오탁번 시인을 떠올리면 건강한 웃음이겠지요. 해학이 듬뿍 담긴 시, 사색이 짙은 시 등 참 다양한 시들을 발표했던 한국 시단의 중요한 시인입니다. 아마 우리 시단의 어떤 자유로움이 깃들 수 있었다면 오탁번 시인의 도움이 크지 않았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사할린만큼 눈 많이 내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서울도 가끔 폭설이 내리곤 하지만 쌓이진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나마 길이 좁어는 느낌이면 제설 차량들이 썩 다 녹여 버리기 때문이지요. 저는 좀 두고 보고 싶은데, 교통 체증이며 도시가 마비될 수 있으니 서울은 서둘러 눈의 흔적을 지우기 바쁩니다. 사할린은 굴을 파고 지나가야 할 만큼, 거의 어른 키만큼 눈이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도 휴교, 회사 출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일단 저는 이런 느닷없는 자연의 위력 때문에 휴교를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환영하는 편인데요. 불편함을 넘어 낭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경솔할 만큼 이를 외면하려 들지요. 눈부신 눈덩이들이 모든 길을 지워버렸는데, 제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새로 길을 만들고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하는 걸 상상합니다. 손에 든 소고기 부채살은 얼어버렸고, 꼬냑은 오는 중에 찢끔찢끔 마셔버려 절반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숨 막힐 듯 하이안 눈의 터널이 끝날 즈음 저를 향해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을 것만 같아요. 항공편이 사라졌지요. 언제 그 긴 겨울을 내려 원고지 잔뜩 들고 사할린을 찾게요. 어쩐지 아내 몰래 혼자 가야 제대로 겨울을 만끽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떠오르네요. 농담입니다, 농담."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사할린 정부, 주내 고학년 학생들이 기획한 마을과 학교 개혁에 적극 지원

<청년예산>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에서 고학년 학생들이 학교시설과 마을구역을 위해 구상한 130개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실생활에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4년에 사할린주 정부가 3억1,750만 루블리를 배정했다.

<청년예산> 지역기획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 기획 실행의 절차는 고학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기관의 시설, 공공장소의 정비에 대해 구상하고,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학교에서 경연을 통해 우승한 구상안은 다음 단계로 지역의 자금 지원으로 지역 정부가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에 주 예산 덕분에 사할린 128개 학교에서 고학년생들의 140개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됐다. 이에 3억1700만 루블리

가 배정되었다. 대부분의 지원자금은 스포츠 시설 및 교육기관의 식당과 강당 수리, 인접 구역 정비에 사용됐고, 몇몇 학교들에는 방송실, 화학교실, 수학교실, 생물교실, 생활안전교실을 위한 장비들이 생겼으며, 연극동아리와 스포츠동아리, 관광 부문을 위한 비품들이 갖추어졌다. 몇몇의 경우에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마을구역 정비 및 개선을 더 요구했고, 체육관 건설 및 예술적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획을 더 지지했다.

"청년 주도 예산은 학생들에게 예산 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사할린 전 지역 모든 학교의 9학년-11학년의 학생들이 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주 예산에서는 각 지방자치체에 250만 루블리를 배정했다."고 사할린주 재무

부 울가 로파티나 장관이 말했다. <청년예산> 덕분에 2023년엔 돌린스크 1호 학교에 자체 사격장이 생겼고, 툰고르 마을의 학교-유치원에는 가상현실 체험방이 생겼다. 크라스노폴 마을의 학교에는 체육관을 개관했으며, 와흐루세브 마을의 학생들은 학교 음악실 정비·수리에 예산을 사용했다. 오제르스코예 마을의 학생들은 학교 극장을 위한 무대 장비와 비품, 의상 등을 받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푸쉬킨 1호 김나지아는 건물 1층 홀 보수공사를 제안했다.

2018년부터 사할린 지역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구상한 780개 이상의 기획들이 실현되었다. 이를 명목으로 주 예산에서 19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되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посвященной году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е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24-25 февраля была размещена площадка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оказывающих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24 февраля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осетить площадки 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движени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за наших»,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уникальной интерактивной выставко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Герои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г. Оха), работой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Вместе мы сила» (г. Холмск),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Сахалин - шьем для наших», традициями бурят - увидели хороводный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дружбы «Ехор», поиграли в бурятскую народную игру «Шагай наадан»,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ть «горячее» сердце о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дготовили две площадки.

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месте с Институтом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держателя для смартфона, а также изготовили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открытки для воинов,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СВО. Сразу на месте открытки были опущены в почтовый ящ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 Ханин» совместно с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Хангыль» представили зеленый чай из провинции Бос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ложи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сладости,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го запечатали символы чая на бумаге. Участники МК также узнал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почему в сервировке посуды выставляют по прямой линии, что символизируют три первый глотка чая и т.д.

##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й 105-ой годовщин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орогие корейцы!

Мы — корейцы с разных стран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живущие в Корее, намереваемся провести небольшой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й 105-й годовщине Дн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Я — КОРЕЕЦ».

Это слов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имеет перевод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том смысле в котором мы его с вами знаем, которое обозначало бы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н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южно/северокорейцы, китайские, японские,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реины и т.д.

Поэтому пришлось написать на русском, как есть и с переводом на английский.

Мы пригласили всех тех, кто считает себя корейцем. Придут южнокорейцы,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даж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риходите и Вы! Корё сарам!

С полудня (12:00) начнется ярмарка еды, вещей, игрушек, а с 13:00 начнет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на котором выступят «наши» с вами бабушки и дети, воспитанники разных школ.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в Парке роз (장미근린공원), в Инчхоне (Хамбак)

Участвуя в данном Фестивале, вы не только сможете погулять по красивому большому парку, отведать вкусностей, получить эстетическ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концерта, но и станете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идеи ЕДИНСТВА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нет ник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елить, дробить и искать различия.

Мы — одна нация и должны жить в мире и дружбе со своими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из какой бы они страны не были.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в свете те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в мире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ямо сейчас.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полностью своими силами, инициативой обычных людей, без поддержки государ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артий, центров и прочих.

Он совершенно не политизирован и не имеет никакой подоплеки, ничего не навязывает и ни к чему не обязывает.

Мы просто хотим сказать, что мы — корейцы, мы такие есть и мы гордимся этим фактом. Мы готовы дружить с такими же корейцами и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Источник: Община коре сарам деревни Хамбак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акция «Россия — это м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Россия — это мы!».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ступи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Роснефти», глава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э России Сергей Цой.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туре «Россия — это мы!» Сергей Цой ведет с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откровенный разговор о будущем страны, о глобальных изменениях в гео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ят в мир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привели к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россиян, прибыли от продажи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стали наполнять бюджет. Был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погашен госдолг, созданы стабфонд и система страхования вкладов. Инфляция и безработица снизились, а ВВП вырос в разы.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дл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тал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самым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Сергей Цой

По его словам, Запад не устраивает стремление России вести независим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и поэтому пытается всеми способами помешать этому,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незаконное наложение санкций. Но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внеш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экономика нашей страны демонстрирует развитие и устойчивость. Россия — самодостаточная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может не только себя прокормить, но и обеспечить энергоресурсами.

В 2022 году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передать операторские функции шельфов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в российскую юрисдикцию. Компания «Роснефть» уже более года успешно управляет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сложным проектом. Здесь применяются самые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освоения запасов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 субарк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а уровень сложности самый высокий из-за особенностей работы на шельфе. За год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выдающиеся операцио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1» обеспечивае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как в федеральный бюдж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 и в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было важно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ть опера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Компания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ась



с этой непростой задачей. Лучшие работники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Шельф» были отмеч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грамотами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ергей Цой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сегодня Россия ведет непростое сражени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суверенитет, традиционные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Поэтому сплоченность страны и ее единение перед внешними угрозами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 для победы.

О Великой Победе, о непростых временах и подвигах русского солдата напомнила гостям 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России Анига Цой, которая исполнила легендарные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Офицеры», «В землянке», «На безымянной высоте», «Эх, дороги», «Нам нужна одна победа» и другие трогательные песни, которые уже десятки лет объединяют россиян, напоминая о героизме наших дедов и прадедов!

В день выступления Сергей Цой посетил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ии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л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На правах старшего наставника глава федерации каратэ России вручил спортсменам символический ключ от нового 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отором с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почти 600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Самые лучшие из них, чемпионы и призеры 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перед гостями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вечера.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Фото: Григорий Иванников

## Третье ежегодн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25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в конвеншн-холл «Эри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 в г. Ансане прошло Третье ежегодн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 котором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двухсот человек — действительные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почетные лица,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и приглашенные гости.

Собрание состояло из двух частей:

- 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на которой был заслушан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финансовый отчет Ассоциации за 2023 год, выдвинуты кандидаты в Совет директоров (Эм Ольга, Пак Вячеслав, Хам Евгения, Тен Денис), а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избрание нового главы ассоциации.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все 4 кандидата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в Совет директоров, а новым лидером АКРК была избрана Тен Жанна.

-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на которой почетные лица выступили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а также были вруч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активистам: Лим Наталья, Ким Ольга, Ким Римма, Пак Вячеслав, Тен Денис, Хам Евгений, Хам Татьяна, Шин Николай, Эм Ольга, Югай Светлане, Ан Даниил, Цай Полина, Нам Алина, Пак Ёна, Тен Дмитрий.

Источник: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Хон Бом До, откроется в Сеуле

1 марта в 15:00 в Сеул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колониальной истории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посвящённой Хон Бом До, сообщает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 легендарная личность.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генералу и битве при Понодоне в истории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роизошёл исторический перелом.

Победа отряда Хон Бом До подняла дух все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вдохнула надежду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 силы.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жизни генерала прошли в Казахской ССР, в городе Кзыл-Орда.

В 2021 году останки героя были с почестями перевез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городе Тэджон.

Выставка расскажет о героической судьбе пэкту-санского тигр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авки выступили Институт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и Музей Вольг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Хон Бом До и Фонда истори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с 1 марта по 5 мая 2024г.

Адрес: 서울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Время работы выставки: с 10:30 до 18:00

Выходной: понедельник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новь призвало врачей вернуться на работу

Установле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рок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аботу бастующих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истекает 29 феврал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десяти тысяч из них подали заявления об увольнении, а около дев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с 20 февраля. Ране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сказал, что ни один из бастующих не будет привлечён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если к 29 февраля работа больниц возобновится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им грозит наказа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в том числе, лише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лицензий. Причиной забастовки является пл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ежегодный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с нынешних 3.058 до 5.058 человек. 27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заявил, что этот план является «минимально необходимой мерой»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которая «не может и не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дметом переговоров». Забастовка привела к сокращ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хирургических операций, проводимых в крупных больницах. Из-за нехватки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медсёстрам разрешено в ограниченном объёме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у врачей, что создаё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иски для пациентов.

## Мэрия Сеула объявила план реконструкции юго-запада столицы

27 февраля мэрия Сеула объявила план реконструкции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толицы,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Куро-гу, Кансо-гу, Кымчхон-гу и Янчхон-гу.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Кимпхо,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аэропорт Сеул-Кимпхо. В н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вести из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часть регулярных и все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в стран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лана столичные власти обратились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траны с просьбой увеличить разрешённую дальность полётов из аэропорта Кимпхо с нынешних двух тысяч до трёх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в районе Ёйдо будет создан аэропорт для воздуш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ертикального взлёта и посадки.

## Начался четвёртый этап сброса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28 февраля Токийска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ТЕРСО) приступила к четвёртому этапу сброса очищенной радиоактив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В течение 17 дней планируется сбросить в море 7.800 тонн воды. По данным ТЕРСО, проверка показала, что уровень радиоактивных веществ в море близ АЭС не превышает стандарт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Первый этап сброса был начат 24 авгус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ретий был завершён 20 ноября. За это время в море сбросили 23.351 тонну очищенной воды. По окончании четвёртого этапа её общий объём составит 31.200 тонн.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 март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ТЕРСО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ещё семь этапов сброса воды общим объёмом 54.600 тонн.

## Фильм «Потребност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удостоен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25 февраля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74-го Бер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Новый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Потребност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завоевал «Серебряного медведя» (Гран-при жюри) - вторую по значимости награду фестиваля. Это было пятое по счёту учас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в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Фильм «Нужды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енщине-иностранке, которая приезжает в Корею преподавать французский язык. Французская актриса Изабель Юппер, исполнившая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ролей в фильме, получила почётного «Золотого медведя» за твор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Ещё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сё в порядке!» режиссёра Ким Хе Ён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жюри.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фестиваля, «Золотого медведя», вручил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му фильму «Дагомея» франко-сенегальской актрисы и режиссёра Мати Диоп. Берли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с 15 по 25 февраля.

## Два фильма из РК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награды Anima-2024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вошли в программу основного конкурс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анимационного кино Anima-2024,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с 23 февраля по 3 марта в Бельг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Брюсселе, это фильмы «Волны» режиссёра Чон Ю Ми и «Архитектор А» режиссёра Ли Чжон Хуна. Фильм, который получит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адет в число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иностранный анимационный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Anima входит в число крупнейших европейских фестивалей анимационного кино. На нём ежего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ся порядка 300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и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RKI

## Южная Корея с оптимизмом отчиталась об экспорте оружия в 2023 году

На дн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компани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ПК)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опубликовали данные по экспорту оружия за прошлый год. Хот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2 годом общие показатели продаж несколько снизились, но в целом корейцы оцени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тимистично: в мире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покуп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РК завоевывает новые ниши для продукции своего ВПК, а "цифры" снова пойдут вверх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на подходе новые контракты. В Сеуле уверены, что они смогут выполнить поставленную президентом цель, войдя в число четырёх ведущих продавцов оружия в мире уже в 2027 г. Вместе с те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и наличие сдерживающих факторов, главным из которых выступает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ей системы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экспортных кредитов, страхования, финансовых гарантий, управления рисками и т.д.

### Меньше денег, но больше клиентов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РК,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поставила за рубежом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во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на общую сумму 14 млрд долларов или 18,6 трлн вон, заняв 9-е место и войдя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десятку крупнейших в мире по экспорту оружия. На долю Р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шлось 2,4%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и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о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казались предсказуемо США - 40% рынка, на втором - Россия (16%), на третьем - Франция (11%). Далее перед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оскочили" также Китай (5,2%), Германия (4,2%), Италия (3,8%),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3,2%) и Испания (2,6%).

Эти показа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в 2023 году можно оценивать по-разному, найдя основания как для радости, так и для пессимизм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 2023 году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оружия на сумму до 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2022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РК был солидне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 17,3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ланы не выполнили, продажи падают.

Н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и иначе. 2022 год стал особым из-за заключения и быстрых поставок в Польшу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оружия в рамках первой части рамочного контракта. Есть и вторая часть рамочного контракта, которая больше первого, а потому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были надежды на неё, но из-за различных причин (об этом ниже),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е срослось". Тем не менее, мега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полякам очень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танков, САУ, РСЗО, самолетов и прочих видов оружия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в силе, и у корейцев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чтобы надеяться на получ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енег, которые ожидали в 2023 году, в нынешнем или 2025 год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сть более радужные показатели. Если в 2022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ружие закупили лишь четыре страны, то в 2023 году список клиентов расширился в три раза - до 12.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анн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также выросло в два раза - с шести до 12. Польша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главным "локомотивом" экспо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однако ее доля в закупках снизилась с 72% в 2022 году до 35%. То есть у Сеула получилось серьезно расширить как географию покупателей (включив как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так и Европы), так и номенклатуру поставляемой продукц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низилас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одного покупателя и не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ВПК, что уже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обещает заметное увеличение и общих объемов продаж. Именно это и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для оптимизма: може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работали денег меньше, чем ожидали, и меньше, чем в 2022 году, но всё это "отобьётся" уже очень скоро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ак увере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 Причины успеха

Другим поводом для оптимизма является резкий рост авторитета и популяр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Безусловно,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который опустошил склады оружия ряда стран НАТО (той же Польши) и заставивший срочно иск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для пополнения арсеналов, когда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явно "не переваривали" объемы резко возросших заказов, явно сыграл на руку Южной Корее. Как известно, рынок оружия - прибыльный, специфический и новичков туда не любят пускать. Корейские танки-САУ-самолеты-РСЗО еще долго бы пробивали себе дорогу на европейский и американский рынки и, возможно, их вряд ли бы туда пустили, но "помог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Украине. Южная Корея вовремя оказалась "под рукой", сумев предлож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оружие, "заточенное" под стандарты НАТО, в больших количествах и в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сжатые сроки.

Впрочем, "сваливать" успехи Кореи только на Украину было бы неверно. Начнем хотя бы с того, что у корейцев было что предложить, есть эти самые танки-САУ-РСЗО-самолеты-подлодки и т.д на продажу, имеется мощнейша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база, технология, активно веду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ферах разработки, да и факто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бязывает быть в тонусе", а потому свой ВПК у Юга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склады забиты, в том числе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го конфликта с соседом, и все понимают, что расслабляться нельзя.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у которой имеется огромный опыт успеш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за рубежом, стала применять все уже давно освоенные алгоритмы и в этом случае. В ход пошла активная реклама, агрессивный маркетинг, участие во всевозможных оборонных выставках, конференциях, симпозиумах, "пакетные контракты", когда с поставками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предлагают и продукцию ВПК,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И это приносит свой результат.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поступило сообщение,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LIG New1 заключила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корей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ПВО "Чхонгун-II". (Cheongung-II или M-SAM, также известен как "корейский Patriot") на сумму в 3,2 млрд. долларов. Hanwha Aerospace, портфель заказов которой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увеличился в шесть раз с 2,4 млрд до 15,2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мимо других сделок ведёт переговоры об экспорте самоходны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установок (САУ) K-9 в Румынию и систем РСЗО в Польшу.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переговоров с Египтом и рядом европ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 поводу продажи самолётов (FA-50). Hyundai Rotem завершает соглашения на экспорт танков K-2 в Польшу. Корейцы также надеются, что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ак минимум часть заказов из Канады, где идет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подводного флота, а также расширить с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рынке США.

### Без проблем не бывает

Конечн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беды и радостные пресс-релизы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и стать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которые порой склонны прихвастнуть и раздать "авансы" по части популярности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в мире, не обходится и без проблем.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рынок оружия - специфический, он инертный, в него непросто войти, нужны связи, очень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мощная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финансовых структур. Да и конкуренты не дремлют: когда дело касается денег, то разговоры про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общим ценностям демократии и свободного рынка" подчас забываются. Многие европ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производителях ВПК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не горят желанием пускать корейцев в свою вотчину и делиться доходами. Так, по слухам, немцы и французы отнюдь не в восторге от того,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ибрать к рукам" польский рынок, начав предлагать свои образцы взамен танков и прочей продукции РК. Та же Германия вытеснила РК из контракта на поставку танков в Норвегию. В странах третьего мира -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Индии - корейцам уже не раз пришлось уступить китайцам, россиянам, французам и други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д угрозой срыва или сокращения находится вторая часть рамочного контракта с Польшей. "На кону" огромная сумма в более 2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опыталась проглотить слишком большой для себя кусок: возникли проблемы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кредитов для сделк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финансовые госструктуры РК.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Южная Корея с оптимизмом отчиталась об экспорте оружия в 2023 году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лабость по ча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ыг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словий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делок уже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в 2017 году корейцы проиграли китайцам тендеры на поставки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в Таиланд, РСЗО - в Малайзию, а в 2020 году по той же причине "ушел" к Франции многообещающий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и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на Филиппины.

### "С надеждой на будущее"

Корейцы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в успехе экспорта их во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везения - опять же вспоминаем про "украинский фактор". Другого такого уникального шанса может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и не быть, а потому Сеул намерен ег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ол-

ную катушку, ставя перед собой амбициозные цел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фициально включил ВПК в число "основных драйверов ро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ставив цель, выйти по итогам 2027 года на 4-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экспорту оружия.

Сейчас, казалось бы, Корея только на девятом, а до 2027 года осталось уже не так много времени. Но,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цифры, то разрыв между Кореей и находящимся сейчас на 4-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экспорту оружия Китая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3 процентов рынка, а с другими и того меньше, так что цель выполним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к 2027 году сможет успешно решить свою задачу, обогнав по экспорту вооружений тот же Китай, а также Германию, Великобританию, Италию и Испанию, среди ко-

торых немало изв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У корейцев полно примеров, в том числ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огда они резко вырвались в лидеры в тех сферах, где до этого многие говорили: "Корея? Да откуда?! Кто про них знает?! У них ничего нет!". Достаточно напомнить, что в начале 2000-х никто не знал про K-POP, про корейскую косметику, мало слышали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о... Но кто сейчас не знает про фильмы "Oldboy", "Паразиты",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про группы BTS, Blackpink, про бренды Missha, Skinfood, JAIM и другие? Если вы лично не знаете, то спросите у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детей, жен, подруг... То же самое происходит 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оружием. Кто еще лет пять назад знал про корейские танки, САУ, комплексы ПВО, подлодки? К слову сказать, ВПК - отнюдь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область экономики мира, где идет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но это уже тема для отдельного разгово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обустраивают пляж по стандартам «Синего флага»

В селе Охот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набережной. В одном из любимых мест отдыха обустраивают безопасную и чистую пляжную зону, велослужбы,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побережье появятся гостиницы, кафе, банный комплекс.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тдыха у воды в популярном у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месте. Работы начались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хотском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основную прогулочную зону, в пляжной зоне появились качели, беседки, лежаки, кабинки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пляжу предстоит получить аккредитацию «Синего флага». Это награда Ростуризма, которую получают зоны отдыха, отвечающие высоким стандарт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чистоты. В Охотском появятся вышки спасате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здевалки, деревянные и пластиковые шезлонги, душевые и медицинский пункт.

– Это должен быть один из лучших пляжей на Сахалине, где люди могли бы отдохнуть на побережье, вкусно пообедать и поужинать, по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интересно провести целый день всей семьей.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ходить комплексно и создава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ведь пляж в Охотском – это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и отправная точка путешествий по дикой природе Сахали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набережной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единый променад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трех километ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ятся зоны отдыха с мангалами, настилы для кемпинга, банный комплекс,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активности – пешеходные прогулки, спортивные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треки, велосипедные маршруты разн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стройства крытого бассейна с теплой морской водой.

–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серьезная задача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всесезонной пля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 разнообраз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твечающей всем параметрам комфорт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отдыха. После реализации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мы планируем первым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йти сертификацию пляжей «Синий флаг». Тем самым, мы зададим высокие стандарты качества сервиса как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для наших гост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архитектурно-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нцепция, котор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не прост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но создание всесезон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несколько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лотов для бизне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бережной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бюджетный эко-отель, визит-центр с рестораном. Променады будут простираются от зоны с ландшафтным парком до событийной площадки, там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ярмарки, гастрофестивали, а рыбаки смогут продавать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 рассказала разработчик концепци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архитектор Анна Носова.

Отмет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яжной зоны уже реализуются две частные инициативы, в том числ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грантовых средств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Туризм и индустрия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 побережье появятся небольшие деревянные домики, уютное каф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стиле с элементам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зайна и открытой террасой, амфитеатр, небольшой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с видом на море.

##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сстановят леса на площади более 3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егиону на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2024 году выделили более 3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ейчас автоном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лесопользователи проверяют техни-

ку, подготавливают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В питомниках и на землях лесного фонда закладываются снежники для хранения посадочного материала.

–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посадки леса на островах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традиционно в мае-июне. Для этого в лесных питомник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вырастили три миллиона штук сеянцев хвойных пород. Из них лиственницы – 2,6 миллиона штук, ели аянской – 0,4 миллиона штук. Сформирован запас семян лесных растений в объеме 493,4 килограмм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Сейчас автоном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дготавливают планы-графики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абот в лесных питомниках, а также в теплицах. В марте в ОАУ «Центральное лесное хозяйство» заложат на снегование семена ели и лиственницы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высева. Весной в питомниках запланирован посев лесных семян на площади 5 гектаров,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ращивание сеянцев с закрытой корневой системой, проведение агротехнических уходов за посевами, внесение пестицидов, агрохимикатов и проче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хранение лес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в 2024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площади 3040 гектаров,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ое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 на площади 684 гектаров, содействие естественному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роведут на площади 2356 га. Основная цель нацпроекта – полностью восполнить выбывший лес.

Напомним,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яв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и приумножение лесных богатств России.

##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благоустро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Проект получил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будет воплощен в жизнь в этом году. С планами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знаком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объезда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месте с мэром Сергеем Надсадиным.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ырастет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рядом с новым жилым комплексом «Авангард».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разделит на три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зоны. Центром мемориальной зоны станет памятник,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й три поколения защитников. В зоне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расположат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а тихого отдыха – беседки и декоративные клумбы из камней. Над всей территорией сквера поработают ландшафтные дизайнеры, там высадят деревья, кустарники и сотни цветов.

Поблизости со сквером,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находятся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колледж и общеж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Фасады зд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преобразят в едином стиле.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а месте стоянки.

– Сквер должен гармонично вписаться в городской пейзаж,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пешеходные связи с основными улицам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олько на скверах. Нуж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фасады зданий вокруг и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й островок, где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приятно будет отдыха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места для отдыха горожан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аждый год в его рамках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бустраивают красив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на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образении сво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сахалинцам помогают волонтеры.

– Мы рассказываем людям о проекте, помогаем разобраться с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ой и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то или и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ма болела за сквер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и очень рада, что он появится в моем родн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поделилась ученица гимназии №2 Мария.

Во время объезда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города посетили также двор дома №24А на улице Поповича. Инициативные жители вместе с депутатами обсуждают сегодня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стройства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кой или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и.

– У нас на этом месте была старая развалившаяся «коробка», ее снесли, и теперь хотим сделать там что-нибудь полезное для жильцов соседних домов. Я сама в этом районе живу уже 75 лет,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Любовь Петров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ложения неравнодушных жителей непременно будут поддержаны.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большие сугробы, оставшиеся после расчистки последствий мощного циклона.

– Сейчас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 своевременный вывоз снега,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о соблюдать сроки. Скоро весна, и тающий снег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 дискомфорт для жителей.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всегда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главное – чтобы у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было желание сделать работу.

Всю эту неделю посвятят вывозу снега с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в том числе с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снежные полигоны.

## 26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ехал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26 дефицитных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1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иехал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и них – инженер-гидрограф, агроном, бортмеханик, авиатехники, электромонтер, инженеры-строители, мастер по ремонту и эксплуатационн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электромонтер по испытаниям и измерениям и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профессий.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влекли нужные кадры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Он нацелен не только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россиян,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о и на помощь работодателям,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работниках.

– Наши компании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местных кандидатов должн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 открытые вакансии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люд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получить от государств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Это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обеспечивает стабильную работу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трудовой мобиль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ю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часть средств, потраченных на оплату жилья и обустройство работника на новом месте жительства, выплату пособия, обуч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привлеченные работник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жилищный креди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 арктическая ипотека» без учета требован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раста и семе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авел Маликов приех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 Сибир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ужчина работает электрослесарем по ремонту и обслуживанию автоматики и средств измерени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в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энерго».

– Конечно, первая реакция была неоднозначно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так далеко ехать, с другой – а почему бы и нет? Работа интересная и ответственна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расти.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сыграл тот факт, что мне обещали служебное жилье. И друг здесь живёт. Он очень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зывался о регионе. Так что я решил прилететь и не пожалел. Мне оказал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и помогли обустроиться, – рассказал Павел Маликов.

Сейчас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 сбор заявок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 прохождение отбора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программу на 2025 год.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можно до 29 февраля.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https://clck.ru/37j9F7>.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고려인 이주 160주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 발족

## 국회, 지자체, 학계, 동포 관련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 60여곳 참여

올해는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 마을에 고려인이 정착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 문헌기록에 의하면, 1863년(철종 14년) 연해주 지신허에 조선인 농가 13가구가 정착해 살기 시작했고, 1865년(고종 2년)에 60가구, 그다음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명에 달하는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해 살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60여 시민사회단체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발대식은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진위가 밝힌 160주년 기념사업 목표는 '세계 고려인/한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K-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이다.

사업 명칭은 '고려인 이주'에서 '고려인/한인 이주'로 확대했다. 1863년 조선인 농가 13가구의 연해주 이주와 정착은 근현대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인 이주의 첫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슬로건은 '세계 코리안 네트워크와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력 - K-CULTURE with 유라시아'로 정했다. 고려인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세계한인사회가 다같이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위는 국내의 단체 및 인사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추진위를 구성해 대중성, 다양성, 주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동 추진위원장은 국회의원 대표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위원장이 맡았다.

추진위에는 이부영 전 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시장, 김창규 제천시시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장, 장치혁 고려학술재단 이사장, 강 니콜라이 세르게이비치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설립자, 정태의 전 주러시아대



6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남철 전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 김원식 원로 목사 등을 비롯해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념사업은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너머, 동북아평화기금 등을 필두로 추진위가 공동 주관하고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제천시, 안산시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 한인 이주 160주년 K-CULTURE with 유라시아, K-마켓 & K-CULTURE 전시 등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는 고려인이 지켜온 한민족 전통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어울림 축제 한마당과 고려인이 주체가 돼 자축하는 기념행사로 열 계획이다. '한인 이주 160주년 K-CULTURE with 유라시아'는 동북아 한민족이 함께 참여하고 청소년 및 청년 세대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등을 통해 한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정착을 알린다.

임채완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전 세계 700만 재외한인사회의 역사적 모태가 됐던 연해주 한인 이민사는 우리 민족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평화·번영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2024년 올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이 어려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16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과 세계한인이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우리말로 깨닫다]

## 저를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인간의 인생인데, 우리는 생은 이미 지났고 사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로와 병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질구레한 병부터 나를 괴롭히는 병,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병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병이 아닌 병도 많습니다. 제가 기쁘게 앓고 있다고 말하는 병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가야하는 병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예전에 자기소개에서 경희대학교에 입학해 있다고 말하는 일본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병원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경희의료원이 아니라 경희대학교에 입학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설레고 마음 아팠는데 그 병을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치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에도 깨달음이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도 비슷합니다. 우리말에서 병을 나타낼 때 증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이네요. 그런데 병이 아닌데도 증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증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짜증을 자신을 쥐어짜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증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해로우니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답답증 등 의외로 병 같은 증도 많습니다. 싫증은 보기에 따라 병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싫증은 시간이 지나서 싫어하게 되는 증세인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반복적이면 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알고픈 것이 많은 병, 궁금증입니다. 궁금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입니다. 저는 저에게 전공을 물어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언어학 중에서 국어학, 국어학 중에서 어휘론, 언어문화를 전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 관심사를 다 말하지 않은 듯하여 아쉽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많기에 관심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굳이 전공을 말하자면 문화언어학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공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언어는 수수께끼 천국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면서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화를 공부하면서 철학과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곧 사람이기에 인간에 대한 것은 무엇이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공기처럼, 아니 공기 이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내 속에도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까 늘 괴로워합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의 한자는 글을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문(學問)은 배우고 묻는 것을 학문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궁금증을 갖고 물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해서는 학문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표현할 때 교수(教授)라는 말보다 학자(學者)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학생은 누구나 학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궁금증을 갖고 학문을 하는 학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말을 만든다면 학문이 아니라 '학문행(學問行)'을 하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묻고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자신에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타인에게 밖으로 전하는 겁니다. 학과 문과 행은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학문행을 하고픈 문화언어학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고려인 화가 빅토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



고려인 화가 문 빅토르(72)가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광주를 오가며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준비해온 문

화백이 1월 30일 고려인마을에 안착했다.

문 화백은 질환 치료를 위해 2022년 광주를 방문한 이후 F4(재외동포) 비자 취득 등 고려인마을 영구 거주를 준비해왔다. 고려인 마을도 조상의 땅 정착과 미술관 건립이라는 문 화백의 꿈을 돕고자 지난해 6월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마을 지원센터 2층에 작은 전시실과 화실,

주거 공간을 마련해줬다.

문 화백은 "고려인 선조의 강인한 민족정신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이어가도록 그동안 체득한 화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화백은 1951년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바스토베에서 태어나 1975년 고골 알마티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7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술 활동

을 시작한 그는 고려인의 역사, 문화, 인물을 화폭에 담아왔다. 대표작으로 '홍범도 장군', '우수리스크 나의 할아버지', '1937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궁과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재외동포창, 2024년 2월호)

## 알레리 리마렌코와 사할린주 청년정부 의원들과 공동사업 총결산

(1면의 계속)

청년정부의 의원들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는 가운데 서류작성과 법적 문제에 대한 답변, 사할린의 가정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청년정부의 나탈리아 베즈루첸코와는 "2023년에는 5천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 청년정부 의원들과 동료들은 주택 건설주 탐색과 아파트 선택, 토지매매, 극동헥타르 등록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우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할린 주민 2천여 명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은 지역 건설부와 '사할린 대출청', 사회복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지사에게 전했다.

청년정부 의원들은 사할린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에도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그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와 메신저,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고스사할린 루(gosakhalin.ru)'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여행사와 문화기관이 제공하는 여행 및 특별행사의 종합서비스에 대한 100개 이상의 패키지 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13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들과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할린과 쿠릴을 방문하게 되었다. 제안이 실현돼 사할린 주민들도 잊을 수 없는 찬란한 휴일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사할린 교육개발은 특별한 감독 아래에 있다. 청년정부 의원들

은 쓰레기 매립지 탐색, 산림화재와 홍수 탐색에 있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무인기와 과학의 현대화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기획 실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활동방향의 하나로 지역 교사들에게 드론 조정 및 비행 기기의 기본 작동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180명 이상의 교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 주제에 따른 수업에서 자신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에서는 학교들에 무인기 보급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기관에 사할린에서 제작된 드론을 포함해 소형 구조의 드론과 장비 2천 대를 보급했다.

주지사와의 만남에서 사할린 청년정부 의원들은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고 대학생 조직단을 통해 지역에 전문인력 유치 및 지역 사회와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유치, 장려금 지원 제공에 따른 활동을 논의했다.

2023년에는 사할린주에서 의대생 의료분견대 국제포럼도 열렸다.

사할린주 청년정부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2020년 8월에 창설되었으며, 선배들의 지원으로 적극적인 사할린의 청년들은 주택정책, 교육, 문화, 사업, IT, 자원봉사, 애국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600명 이상의 스키어들, 사할린 트로이츠키 스키 마라톤에 참가

2월 23일(금) 아니와 지역에서 제 31회 트로이츠키 스키마라톤 첫날 경기가 진행됐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블라고웨셴스크, 콤포몰스크 나 아무레 시를 비롯해 사할린의 다양한 지역에서 스키선수 280명 이상이 전통적인 첫 경기에 참가해 15, 25, 50 km를 완주해야 했다.

31회 트로이츠키 스키마라톤 경기 2차전에는 450여 명이 참가했다. 스키어들은 200m, 500m코스과 1km, 2km, 3km, 5km, 10km 코스 클래식 종목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왔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2월24일 토요일에는 대회 첫날과 달리 성인과 아동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경기에 참가하면서 이틀간 진행된 스키마라톤에 총 670명이 참가했다.

이 스포츠 행사는 <가족 모두 함께>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회의 주 후원으로 '사할린해양석유가스-셀프'와 '사할린-1'기획이 나섰다.

## Больше 600 спортсменов пробежали Троиц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ый день XXXI Троицкого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рошел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23 февраля. На старт традицион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шли более 28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Благовещенска и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бежать дистанцию 15, 25, 50 км.

Второй день XXXI Троицкого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собрал порядка 450 участников. Лыж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оказать мастерство в классике на 200 и 500 метров, а также 1, 2, 3, 5 и 10 километров,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

нал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дня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субботу, 24 февраля, к масштабным состязания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е, но и дети. Всего за два дня марафон собрал 670 лыжников.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сей семьей». А генеральным спонс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АО «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Шельф», проект «Сахалин-1».

## 연해주에서 <연해주의 아이들> 국제 동계스포츠게임, 처음 열려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연해주에서 <연해주의 아이들> 국제 동계스포츠게임이 처음 개최되었다.

경기 결과 메달 순위로 중국의 길림시팀이 1위를 차지, 블라디보스토크팀이 2위, 캄차트카 변경팀이 3위를 차지, 벨라루스 공화국이 4위, 사할린주가 5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 연해주 30개 지방자치단체팀, 극동연방관구 10개 행정자치지역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팀, 벨라루스팀, 중국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팀, 우즈베키스탄팀이 참가했다. 총참가인원은 약1,500명에 달하며, 그중 선수들은 1000여 명, 자원봉사자 300명, 심판이 200명이다.

## В Приморье прошли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Приморья»

С 18 по 23 февраля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прошли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Приморья». По итогам медального зачета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команда китайского Цзилляня, второе у сборной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четвертой стала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на пят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из 30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борные 10 субъектов ДФО,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команды Белоруссии, Китая, КНДР, Узбекистана.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а 15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1000 спортсменов,

300 волонтеров, 200 судей.

## 극동지역 주민들, 판타지와 추리소설 선호

극동지역의 주민들이 판타지나 추리소설을 가장 자주 읽는다고 '아비토 라보타'와 '리트레스 공동설문조사서비스'가 이러한 조사자료들을 밝혔다.

자기계발과 연애소설은 그 뒤를 이었다.

"극동지역 주민들 중에 가장 인기있는 문학 장르는 공상과학과 판타지가 34%, 추리소설은 33%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계발과 개인 성장에 관한 것이 29%, 모험 27%, 연애소설은 24%로 집계됐다."고 설문조사팀이 밝혔다.

설문조사자 중 80%가 여가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고 읽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10%가 이런 습관을 갖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자들은 극동지역 주민들이 비즈니스 서적과 기술 및 인공지능에 대한 서적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аще читают фантастику и детективы

Ж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чаще всего читают фантастику и детективы.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я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сервисов «Авито Работа» и «Литрес».

Следом идут книги о саморазвитии и любовные романы.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литературными жанрами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оказались фэнтези и фантастика (34%) и детектив (33%). Дале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идут книги о саморазвитии и личностном росте (29%),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е (27%) и любовные романы (24%)», - говори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очти 80%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читают, либо слушают аудиокниги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А 10% респондентов желают такую привычку завести. Авторы исследования также отмеч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к бизнес-литературе (23%) и изданиям про технологии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15%).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редактиру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